

<8,9월 말라위 선교편지>

이상기온과 온난화로 네팔의 산사태붕괴로 인해 많은 삶들이 희생이 되어 안타깝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아프리카에서도 아직까지 아침저녁으로 차갑습니다. 원래는 이때쯤이면 무더운 날씨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겨울날씨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전쟁중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 유치원졸업식



지난 7월말에 72명의 유치원 학생 중에 33명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유치원이 인근에서 소문이 나서 선착순 등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가 무료이고, 둘째가 매주 목요일마다 영양 죽을 공급하고, 세번째로는 졸업생모두에게 유니폼과 학교가방 그리고 학생들 문구류를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업기간 중에 말라리아 걸린 학생들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말라리아 비용은 인천의 작은 개척교회에서 선교비로 그 금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졸업식때에는 졸업생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갈 유니폼을 입고 재학생들에게는 우리 유치원 단복을 제공합니다.

성적표를 나눠주고 졸업 학예회를 발표하고 그중 그리스도의 5확신을 암송하고 그동안 배운 것들을 학부모들 앞에서 발표하고 신앙의 기초를 숙지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울산에 사시는 어느 권사님이 예쁜 학교가방을 후원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하였습니다. 이렇게 졸업한 어린이들이 말라위의 크리스찬 사회로 흘러 들어 갈때마다 말라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에 말라위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가장 못사는 나라 3인방에 머물렀는데 이제는 순위가 7위로 꺾충 뛰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조금 썩이라도 진전되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쥐잡는 아이들



하루가 저물어가는 데도 말라위의 아이들은 한없이 행복하기만 하다. 이 아이들은 마땅한 놀이터가 없을 뿐더러 용돈을 주는 부모들이 거의 없기에 재미 겸 용돈벌이 겸해서 쥐를 잡습니다.

쥐 한마리당 500과차(한국돈450원)를 받기 때문에 아이들 용돈 치고는 쏠쏠합니다.

이른 아침 5시면 일어나서 전날저녁에 놓은 쥐덫을 확인하러 갑니다. 오늘 몇 마리 잡았느냐고 물었더니 7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학이어서 자유롭게 쥐도 잡고 놓입니다.

그러나 한 학년 올라가기가 만만치가 않다. 우리 센터 주변의 아이들

에게 물어보니 30-40% 아이들이 상급 학년을 올라가지 못하고 재수를 한다고 한다. 그것도 초등학교를 재수한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 센터에 사는 아이들도 1학년을 두번씩이나 재수(삼수)하여서 2학년에 올라갔는데 2학년에서 3학년을 또 못 올라갔다고 하여 모두가 속이 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빌리지 아이들의 30-40%가 학년을 올라가지 못해 재수 한다고 하니 학년을 올라가지 못한 부모들은 서로 위로하는 되는 모양입니다.

아마 영국교육의 영향이어서 그런지 교육시스템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Secondary School에서는 시험기간 중에 총을 멘 군인들이 와서 학교 내외곽에서 경계근무를 합니다. 교육이 그나라의 미래가 달려있지만 저희로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셰퍼드 강아지



평생을 살면서 강아지를 케어 해보기는 두번째입니다. 25여년전에 한 겨울에 키우던 진돗개가 백구와 황구 5마리를 낳아 그때 열살도 안된 우리 딸아이와 함께 미역국을 먹여 가면서 다 살려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아프리카에서 밤마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셰퍼드가 처음에 두 마리의 새끼를 낳더니 7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한 마리가 죽어서 숫자를 새어 보았더니 또다시 7마리여서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한 마리가 또 죽어서 또다시 숫자를 새었더니 또 7마리여서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9마리에서 5마리가 엄마개에게 깔려 죽었습니다.

가격은 잘 모르지만 한 마리 새끼에 90만과차(한국돈 85만원상당)여서 돈이 될 줄 알았는데 4마리만 남았습니다.

어쨌든 몇 년을 공들여서 새끼를 낳으려고 했는데 이제서야 그러한 호사를 누리봅니다. 네 마리 새끼들과 엄마개가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 어느 만화가 후원자의 놀이터 후원



생각치도 못했는데 한국의 드림스드림을 통해서 놀이터 후원이 들어와서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사실 종전에 캐나다단기선교팀들이 3가지 놀이기구를 후원을 해주었는데 현지인 아이들이 다소 종류가 적어 아쉬워 했는데 이번에 원숭이 게임바와 시소를 지원 해주셨습니다.

아쉬운 것은 말라위 수도인 릴롱웨에서 단 한군데만 제작하여서 여러 주문이 한꺼번에 몰린 데다가 재료비상승으로 가격문제 절충이 다소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저희 센터에 5가지의 어린이 놀이 시설이 있다는 것 만으로도 유치원중에서는 거의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 은혜와 후원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 만나바이블과 문해교육



만나바이블 성경읽기는 우리 신앙 생활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성경읽기 사역에서 가장 지장이 되는 것이 있다면 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매월 만나 바이블을 잘 배우고 문해교육을 성실히 하는 교인들은 옥수수 가루 한가마씩을 선물로 줍니다.

지금까지 상당기간을 사역을 진행하는 동안 신청자도 많았지만 중도 포기자가 많다는 것이 큰 문제 입니다.

그래도 전혀 글을 몰랐던 문맹인들이 자기이름을 알고 성경을 제법 잘 읽는 것을 보니 참으로 감사하고 기적같이 느껴 집니다.

특히 저희는 차파타 센터와 분다 센터등 두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어 현지인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복음(하나님의 본성)을 알기 위해서는 필수코스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 분다유치원 개원



이번에 미국의 어느 부부가 분다유치원을 후원하여 아름다운 유치원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분다지역은 아이들은 많고 유치원이 없어 많은 현지인들의 바램이었고 또 차파타 센터의 절반가량이 두시간씩 걸어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 건물이 완공되어졌고 새학기인 9월중순에 새롭게 유치원을 개원하고자 합니다.

이 분다 유치원도 차파타의 오병이어의 학교처럼 복음과 구제로 소문난 유치원이 되게 하옵소서.

-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유치원 건축과 개원 아울러 카페테리아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카페테리아는 우기때 교인들이 비를 피하여 마땅히 갈 곳이 없을 뿐더러 식사장소와 아이들의 쉼터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기가 되어도 교인들과 아이들의 쉼터이자 식당역할을 하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더욱이 이 카페테리아는 전 한기총 및 세기총 총회장님이자 현 예장 개혁신회장님으로 계시는 정총회장님께서 후원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분다센터를 통하여 행하여질 주님의 계획과 비전에 가슴이 부풀어 옵니다.

거듭 하나님의 은혜와 정총회장님의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 행복한 농장



서울 인근 신도시에 있는 어느 교회 맥추감사에물로 우리 말라위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립 선교 경영차원에서 농장을 만평(8에이커)을 구입하여 금년도에 옥수수 90가마를 수확하였습니다.

우리 LDM 가족들에게 매년 200-300 가마를 헝거시즌에 구제사역으로 하고 있는데 다소 부족합니다만 주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질 것을 확신 합니다.

더욱이 맥추 감사예물로 목사관하우스와 농작물 창고까지 건축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행하실 비전을 바라보며 자립선교를 위해 기도를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샬롬

기도제목

- 지금 진행되고 있는 Youth Ministry 중 학교 중도 포기자들이 학교와 훈련에 빠지지 않고 잘 다닐 수 있도록 부모와 학생들의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 자립선교차원에서 20에이커의 농지 및 트랙터가 필요합니다. 위하여 중보기도부탁드립니다.
- 캐나다 단기 및 중기선교팀 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위해 젊은 동역자 및 협력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유치원, 청소년 영어교사, 그리고 재봉틀과 각종 직업훈련에 필요

한 장단기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한국에서 오시는 목사님과 권사님의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해주시고 은혜와 사랑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1. 많은 분들이 본인의 후원구좌를 요청하여 부득불 게재합니다.

Keb하나은행 303-04-00004-887 예금주: GMP민경화

2. 2026년부터는 선교편지를 2개월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라위 민경화/홍희선교사드림